

항공업계, 中 '사드 보복' 에 골머리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단 전역 확산... 항공 자유화 지역 신규 취항·증편 계획 제지

국내 항공업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국행 관광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가 하면 국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과 증편 계획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베이징에서 내린 한국행 관광상품의 판매 금지 지침이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 자유 여행보다는 여행사를 통한 개별·단체 패키지 관광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이같은 보복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업체들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중국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19% 수준이다.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도 중국 여행사와 패키지 상품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중국 정부는 이 뿐 아니라 국내 항공사들의 정기편 운항에도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실제 중국 민항국은

내주 승인 예정인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28일~10월 말) 운항 일정에서 국내 항공사들이 신청한 신규 취항과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한·중 양국 간 정기 운수권을 배정하지 않고도 개별 항공사가 신청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곳인데 현재 산둥반도와 해남도 2곳이 있다. 중국의 규제 현 실화되면 산둥반도 내 청다오·옌타이 등 주요 수익 노선에 추가로 항공기를 띄울 수 없게 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아직 사드 보복의

직접적인 여파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예약 편이 취소되거나 한 경우는 없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 항공사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국내 항공사보다는 자국 항공사를 통해 단체로 한국에 관광하려는 경우가 더 많아 실질적으로는 중국 항공사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SW교육·연구 선도학교 올해 1200곳으로 확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8년부터 단계별로 시작되는 소프트웨어(SW)교육 필수화를 앞두고 2017년도 SW교육 연구·선도학교를 1200곳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SW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초등학교 241개교, 중학교 124개교, 고등학교 91개교 등 총 456개교로 기존 선도학교 744개교와 함께 SW교육을 운영한다.

SW교육 연구·선도학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실과' 과목, 중·고등학교는 '정보' 과목을 통해 SW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게 된다. 교과 시간 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동아리, 방과후 학교 등을 활용해 SW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별 평균 1000만원의 운영지원금과 함께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담당 교사들의 SW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SW교육 자문단을 구성해 SW교육을 시작하는 학교들에게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SW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발굴된 우수교육사례와 교수학습법 등 노하우는 일반학교로 전파되고 이들 학교는 SW교육을 준비하게 된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연구·선도학교의 내실 운영과 함께 교원 연수, 인프라 확충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4차산업 시대 국가경쟁력 확보해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제1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에서 중대위기의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성장 시대를 열고 4차산업 시대 맞춰 국가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면금융재산, 642만명에 1조2450억 환급

종합대책 발표 이후 1달말까지... 휴면보험금 1조154억원으로 가장 많아

최근 2년여 간 고객이 찾아간 휴면 금융재산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6월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말까지 642만명이 총 1조 2450억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금융권과 캠페인을 벌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76만명이 1501억원을 찾아 월평균 환금액이 캠페인 이전에 비해 81% 증가했다.

환급된 휴면금융재산 내역을 보면 휴면보험금이 1조154억원(81.5%)으로 단연 많았다. 이어 미수령주식·배당

금 1081억원(8.7%), 휴면성신탁 580억원(4.7%), 휴면성증권 547억원(4.4%), 휴면예금 88억원(0.7%) 순이었다.

그러나 휴면금융재산의 신규 발생으로 1월말 현재 1조3911억원이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휴면보험금 7967억원(57.2%), 휴면성신탁 2363억원(17.0%), 휴면예금 1848억원(13.3%), 휴면성증권 1168억원(8.4%), 미수령주식 575억원(4.1%) 등으로 분포했다.

이 중 22만명은 100만원 초과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휴면금융재산은 전체의 70.6%(9827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변경된 주소를 몰라 안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안내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2018년부터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항목에 휴면금융재산 환급노력을 반영할 방침이다.

휴면금융재산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잡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뉴스시스

"통장 빌려주면 600만원 드려요"

금감원, 대포통장 문자메시지 주의 당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가 불특정다수에게 발송돼 금융감독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모집 광고 관련 신고 중 문자메시지 유형은 579건으로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283%) 급증했다.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도 14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모집은 전년과 유사한 79건 접수됐다.

이들은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거나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까지 빼앗는 신종 수법도 발생했다.

구직사이트에서는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계약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유도했다.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대포통장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뉴스시스

"삼성·애플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될 듯"

프리미엄 신제품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채택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위축 속에서도 삼성과 애플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갖춘 경쟁력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올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신제품을 내놓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호 대신증권 연구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공급과 기술 확보 여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영역에서 성장 지속, 점유율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리한 상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삼성의 갤럭시S8과 9월에 선보일 애플의 아이폰8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다만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제조 능력과 부품 품질 향상으로 삼성과 애플을 추격하고 있으나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아직 큰 위협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위권 업체 간 치열한 점유율 경쟁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노키아, 블랙베리, 모토로라 등 과거 1위 업체의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으나 중저가 영역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과 애플과의 경쟁에서 후퇴한 것을 만회할 차별화 요인이 적다"고 판단했다. /뉴스시스

화재보험협회, 태러대응과정 개선

방재기술실무교육 과정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경기 여주시 내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2017년 방재기술실무교육 과정에 태러대응 과정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총사지의 태러대비 예방활동 및 유형별 긴급대응조치, 오염확산 방지, 구조·구급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화생방 작용제 특성

과 오염지역 표준행동절차 ▲위험물 누출 등 주요 상황처리 및 대응계획 ▲생물학 작용제 특성 및 생물테러사고 위기대응 행동절차 ▲핵 감지 대응 및 방사능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공공안전시설, 국가중요·보안시설의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와 테러예방·대응 관련 소방, 경찰, 군인, 구조·구급 등 특수요원이다. /뉴스시스

순창종합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